광주 2대1, 전남 2.4대 1…낙선자 물갈이 놓고 갈등

더민주 지역위원장 공모 접수 마무리…심사 시작

전국 253지역구 364명 신청
곳곳 총선 이어 리턴매치
낙선자·단체장·지방의원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를 시작하면서 '전당대회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4·13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낙선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전당대회준비위가 출범 직후부터 '낙선자 물갈이'를 예고한 만큼 상당수의 낙선자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집단 반발 등 잡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현 지역위원장인 총선 후보들이 대부분 사실상 '정치신인' 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레 물갈이를 하면 가뜩이나 국민의당의 출연으로 기반이 약해진 지역조직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조직 세력 구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당권은 물론 대선후보 경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지역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잠잠했던 계파간 충돌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 2대1…낙선자·전 의원·단체장 등 응모=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364명이 신청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8곳 지역위원장 공모에 16명이 응모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북구갑과 광산갑이 각 3명씩 응모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구을과 북구을에는 각각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단수 신청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4·13 총선 낙선자 중 이용섭(광산을) 전 의원을 제외한 7명 모두가 지역위원장에 응모했으며, 박혜자(서구갑)·강기정(북구갑) 전 국회의원 등 19대 국회의원 2명도 신청했다.

경선이 이뤄진다면 박혜자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송갑석 (사)광주학교장과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차례 더 승부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갑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더민주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용빈·임한필·허문수 3명이 한 차례 더 치열할 경선을 치르게 된다.

현역 자치단체장으로는 최영호 남구청장이 동남갑에,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산을 지역위원장에 각각 응모했다. 이 가운데 광산을에는 민 청장 측근으로 잘 알려진 김삼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응모하면서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중앙당이 현역 자치단체장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 청장이 자신의 측근인 김 이사장을 '대타'로 내세웠다는 설이 파다하다. 산하 기관장이 사퇴하지 않고, 지역위원장에 응모했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민 청장 측은 "김 이사장이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지역위원장에 응모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응모하지 않았다.

◇전남 2.4대1…순천 7대1로 가장 높아=전남은 10곳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24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인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 지역구를 제외한 9곳 지역위원장 공모에 24명이 신청해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13 총선 출마자들 중에는 우윤근(광양·구례·곡성) 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역위원장 도전에 나섰다. 일부 지역위원회에는 지방의원과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순천은 7명이 응모해 7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김광진·서갑원 전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고재경 전 정책위 부의장 등 7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했다.

단수 후보로는 지난 4·13 총선에서 전남지역 더민주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의 김영록 전 의원 2명이다.

2곳의 지역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응모해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는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기준을 논의한 뒤 서류심사와 지역 실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위원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왼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손학규 목포 회동…국민의당 러브콜에 손 고문은 미소만…

총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목포에서 전격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가 손 전 고문에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손 전 고문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들의 만남은 손 전 고문이 이날 목포출신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난영 가요제' 관람을 위해 목포를 찾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손 전 고문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적인 만남에 이어 50여분간 둘만의 '비밀 회동'을 가져 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으로)오라고 했다"며 "손 전 고문은 특유의 미소만 지었다.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 전 고문에게 국민의당 입당을 공공연히 권유해왔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손 전 고문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향해 "중도세력 결집체인 '국민의당이 좋다'고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가요제가 끝난 뒤 오후 10시 20분께 목포 한 식당에서 만났다. 먼저 와 있던 손 전 고문은 박 원내대표가 들어서자 어깨를 두드리며 반기고 나란히 앉아 막걸리잔을 기울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종인·김세연·김성식·유승민 등 12명 참여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 곧 출범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하는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이 출범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5명(김세연·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더불어민주당 3명(김종인·조정식·이철희), 국민의당 3명(김성식·김관영·오세정), 무소속 1명(유승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잠재적 '킹메이커'들이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들이 행보가 차기 대권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 인사들은 정책적 노선에 대한 모색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모임은 오는 7일 국회사무처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래 입법 과제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수권정당 시험대…개원협상·정치개혁 역할 '관건'

특권 내려놓기 과제 곧 발표…조강특위 구성 안철수 측근 인사 최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앞두고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슬기롭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지와 일찌감치 불붙기 시작한 원내 정책경쟁에서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13 총선 후 두달 가까이 국민의당은 사실상 당의 '입' 역할을 해온 박지원 원내대표의 분주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직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정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조만간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태세다. 최근 안 대표가 원 구성 협상 타결 때까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제안한 것은 이런 작업의 '서곡'인 셈이다.

특히 이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압박해 협상의 타개책을 만들어내고 20대 국회 초반기에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성식 정책위위장을 중심으로 정책경쟁에 대비한 카드들을 준비하고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김영환 사무총장이 맡았고, 이 밖에 부좌현 사무부총장과 황인철 조직담당 사무부총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관심이 쏠렸던 임명직 8명은 모두 원외 인사로, 김종현 동아대 교수,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유영업 청년위원장, 이옥 여성위원장, 박종범 대전시당 사무처장, 안귀옥 여성변호사, 김지환 경기도의원, 이영훈 전 JC중앙회장 등이다.

임명직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배가 이뤄진 가운데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쪽 인사가 가장 많은 것에 눈에 띄었다. /박지경기자 jkpark@